

원자재 레시피

국제유가: 새로운 패권전쟁과 에너지 구도 변화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회복은 중동 리스크 완화에 큰 역할을 할 듯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이란이 2016년에 단절된 외교 관계를 7년 만에 회복하기로 하면서 중동 내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사우디와 이란은 국교 재개를 선언하면서 2개월 내 대사관 복원 계획을 밝혔다. 수니파를 대변하는 사우디와 시아파를 대변하는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은 핵 합의 복원과 원유 생산 재개를 기대했으나, 바이든은 당장 눈앞에 닥친 자국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협상 전개가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서 농도 84%의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한편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던 세력이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도 비전 2030 추진에 앞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편이 유리했을 것이다.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중동 발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 역할로 나선 중국, 중동과의 연대 강화되는 중

주목할 점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배경에 중국의 중재가 있었다는 점이다. 합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졌으며, 합의 당일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중국은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높고, 특히 사우디로부터의 석유 수입 비중이 18%로 압도적이다.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지만, 그 전까지 서방 제재로 인해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도 대량 수입해왔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원유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라는 외교 성과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화되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구매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페트로 위안을 유도하는 중국과 새로운 패권전쟁 시작

과거 원유시장의 패권전쟁은 빅3 생산국인 미국, 러시아, 사우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러시아는 서방 제재 영향으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고,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패권전쟁의 주체가 변모할 수 있어 보인다. 미국은 이미 원유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유 생산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페트로 위안의 위협은 다른 문제다. 1945년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이 시작되고 1974년 양국이 페트로 달러 협약을 맺으면서 원유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는 상당히 공고했는데, 지난 해 러시아산 원유 거래로 인해 비(非)달러화 거래가 증가했고 사우디-중국 간 위안화 석유 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겨울 유례없이 온난한 기후로 인해 에너지 위기는 넘길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재편되는 중인데 탈달러화 움직임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중장기적인 위협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Investment Strategy

Commodity



Economist 전규연
02-3771-8196
kychun@hanafn.com

RA 서예빈
02-3771-7574
yebin.seo@hanafn.com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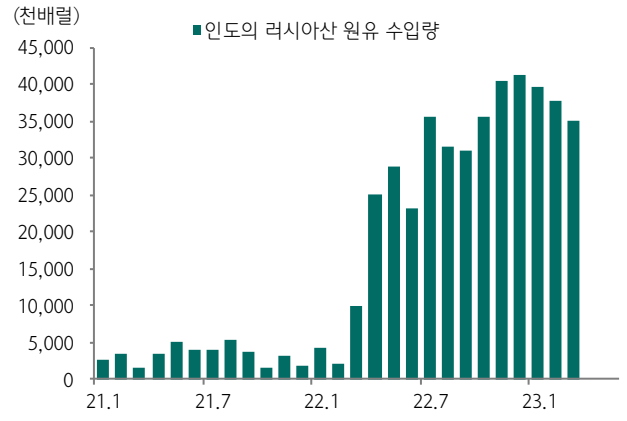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서방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은 점차 줄어들 듯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그림 2.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전쟁 이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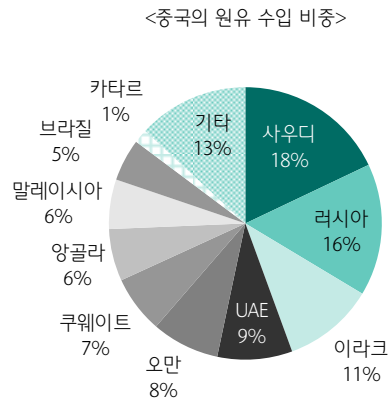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그림 3.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원유 수입물량 증가세



자료: CIBC,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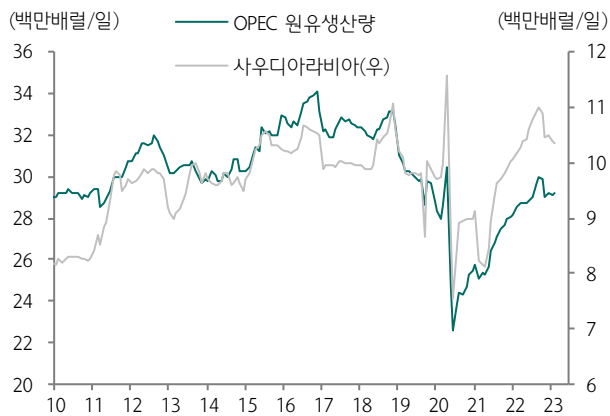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원유 수입 중 중동지역 차지 비중이 높아



주: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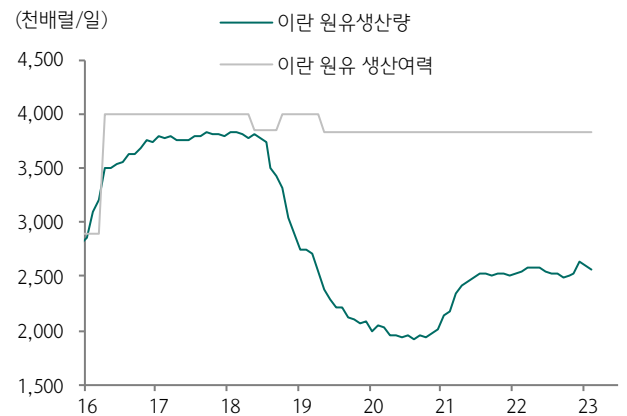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그림 5. OPEC과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그림 6. 이란의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